교회 회원 신청서

휴스턴 서울교회 회원 교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교회에서 임명을 받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 교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첨부된 신상 기록서를 기록한 후 서명하여 목자께 제출해 주십시오. 목자는 기재 사항에 오류나 빠진 것이 없는지 살피고 서명하여 초원지기에게 제출하고, 초원지기는 사무실 주보함에 넣습니다.

집사회의를 거쳐 주일 예배 시에 회원 영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회원영입 날짜는 목자와 의논하여 사무실에서 통보해드립니다.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 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청 일자: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_____

소속 목장: _____

성 명: _____

예수 영접 모임 참석 여부

( ) 아니오 ( ) 예; 참석 일자: _____

목장식구(신청인) 소개:
목자 서명: _____

초원지기서명: _____

집사회의 통과 날짜: _____

(첨부한 목회자 코너는 회원 신청하신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2022 서식

확인	

신 상 기 록 서

신 청 인				회원영입날짜	년 월 일
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교회등록날짜			
소속목장		목자이름			
주 소					
집 전 화		휴대전화			
e-mail					
직장/사업장명				침례날짜	
직장전화				침례 받은 교회	

배 우 자				회원영입날짜	년 월 일
한글이름		영문이름			
생년월일		교회등록날짜			
휴대전화		e-mail		침례날짜	
직장/사업장명		직장전화		침례 받은 교회	

자 녀

관 계	이름	영어 이름	생년월일	예수영접여부	알레르기	금지음식	기 타 (교회가 알아야 할 일)

※ 회 원 서 약 ※

나(우리) _____ 는(은)

○ 뒤에 첨부된 두 편의 목회자 코너를 읽었고 동의합니다.

○ 회원교인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매주 목장 모임에 참석하여 제자로의 삶을 연습 해 나가겠습니다.

○ 주일 연합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여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 생명의 삶: ○ 수료하였습니다. ○ 돌아오는 기수에 수강하겠습니다.

서 명: (신청인) _____

(배우자) _____

[위의 자료는 저희 교회의 가정교회-360 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2022 서식

휴스턴 서울교회의 회원이 되시기로 결정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래에 목회자 코너에 나갔던 "등록 교인과 회원교인의 차이"와 "이혼에 관하여"를 다시 옮겨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고 교회와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회원 교인이 되기 위한 마음 다짐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No. 703 "여러분 등록교인과 회원교인의 차이점을 아세요?" (8. 13. 2006)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원교인? 그거 등록교인 되고 나서 얼마 지나야 되는 것 아냐?" 이런 분은 두 가지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매주 예배 때 회원영입 할 때 마다 듣는 소리인데 왜 몰라? 등록교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는 타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지. 다만 서울 침례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만으로 등록이 되지만, 임명도 받고 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 회원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신청해서 다른 회원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회원 교인이 되는 거지." 이 정도만 대답할 수 있어도 만족스럽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 난 김에 이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원교인은 첫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16-17절의 사도 베드로가 보여준 고백 즉,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교회에 관해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되시고 (골로새서1:1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23) 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모습)이 되는 교회의 일원으로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교회의 활동은 회원교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과 결심이 없는 분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록교인들에게도 교회 봉사의 기회를 드리고 교회와 가까워지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정교사라든지, 예배 때 독창을 한다든지, 또는 각 사역부서의 주요한 역할은 회원 교인이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역을 하시는 분은 속히 회원 교인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등록교인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므로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원교인은 어디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교인이면서 술집에 출입한다던가, 회원교인이면서 정직하지 않게 장사를 한다던가 할 경우, 그것이 바로 교회에 부끄러움이고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페이지는 회원 신청하신 분께 드리는 것이니,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No. 454 "이혼에 관하여" (10. 28. 2001)

이혼으로 인하여 파괴되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비 기독교인들의 이혼율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부부가 된 사람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 19:6)"

성경에서는 이혼이 허락되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간음을 하는 경우이고(마 5:32),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 믿는 것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입니다(고전 7:12～16).

배우자가 간음을 했던지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하여서 이혼한 사람은 이혼의 피해자입니다. 이들에게 이혼은 가슴 아픈 사건일지언정 부끄러운 사건은 아닙니다. 이들을 교회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역을 맡길 때에도 이혼 경력을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재혼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했거나, 믿음을 이유로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 외에도 성경은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고전 7:10～11). 허락되는 분명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현대 상황에서는 배우자가 폭력을 사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노름이나 마약 중독에 빠져서 자녀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할 때에 재결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을 하든지 세상을 떠나서 재결합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독신으로 머물러 있을 각오가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 합당치 않은 이유로 이혼을 먼저 요구한 사람은 이혼의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가 선행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에는 다음 세 가지 증거가 따릅니다. 첫째로 이혼이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둘째로 전 배우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위자료 지불이나 자녀 부양비 지급 등 이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집니다. 셋째는 다시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혼의 가해자가 교회 회원 교인이 되거나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철저한 회개의 증거가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영합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누구나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이다(마 5:32)" ◇

이 페이지는 회원 신청하신 분께 드리는 것이니,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